

# 대순진리 해원상생의 현세 실현과 그 실천수행 연구

금 교 영  
영남대학교 · 강사

- I. 머리말
- II. 해원상생의 현세 실현
- III. 해원상생의 이중심적 실천수행
- IV. 해원상생의 타중심적 실천수행
- V. 맺음말

## I. 머리말

2014년 연말 우리 한국사회의 화두가 ‘갑질하다’이다.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갑질하고, 재벌 2~3세가 갑질하고, 시공사가 하청인에게 갑질하고, 그리고 제조사가 판매 대리점에게 갑질한다. 이런 현상의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 비일비재하며, 화제의 사건들은 마스크를 통해서 우리의 귀전을 두드린다. 마치 요사이 한국 사회에는 인륜의 도의보다는 돈을 벌고 권력을 행사하는 정글법칙이 통용되는 듯하다.

비록 SNS를 통해서 시민들이 그런 갑질들을 비난하고 조소하지만 또 마스크를 통해서 사회 여론이 그것들을 책망하지만, 진정으로 그 갑질들이 없어지도록 하는 장치가 우리 사회에서 작동하는지 반문하

지 않을 수 없다. 그 갑질이 없어지도록 하는 교육이 실행되고 있는가?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아니면 종교적 교화 내지 문화적 사회화가 이뤄지고 있는가? 아마 이런 질문에 우리 사회인들은 아무도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갑질의 갈등, 반목 그리고 대립으로 우리 사회의 발전동력이 점점 더 허약해질 것이라 예측된다.

이런 사회적 상황을 타개할 정신적 안목을 트여줄 근거를 필자는 대순진리의 해원상생사상에서 찾고자 한다. 알다시피 대순진리의 해원상생은 ‘인간 숙명의 원을 풀고 더불어 서로 잘 살아보자’는 것이다. 물론 한국 전통사상 중에 원효의 화쟁사상이 있다. 그 사상이 비록 원초에는 여러 불교교리를 통합하려는 의도에서 생겨났지만, 또한 원용무애의 마음으로 서로 다투고 대립 갈등하지 말고 서로 더불어 잘 살아가는 방향으로 힘쓰자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런 사상들의 전통을 이어받은 대순진리의 해원상생사상에서 이 답답한 사회적 분위기를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 원리를 찾고, 그 원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실천수행을 강구해 본다.

이를테면 대순진리의 해원상생 말씀에 따르면, “상제님께서 해원의 천지공사를 베풀어 해원상생의 토대가 잡혀있으나, 사람들이 저마다 해원해야만 완전한 해원상생이 된다.”<sup>1)</sup> 상제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해원하도록 천지공사를 베풀어 이제 더 이상 원을 쌓을 일들을 현세에 없도록 해 두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뜻을 받들어 원을 쌓지 말고 상생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상제님의 뜻을 받들고 펴는 것이 바로 상제님에 대한 우리 인간의 부응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예컨대 성(誠)·경(敬)·신(信)의 정신자세로 상제님과 그의 말씀을 받들어 모시고, 해원한 마음으로 예컨대 5개 훈화와 수칙을 지키는 이타행위 등을 하도록 한다. 이렇게 할 때, 이것이 우리 사회의 갑질문화를 없애는 운동의 시발이 되며 또한 그 운동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1) 이항녕, 「해원상생사상의 현대적 의의」, 『대순사상논총』 4 (1998), pp.12-13.

이처럼 ‘대순진리의 이타적 해원상생 실천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 유행하는 갑질문화를 불식시키고 여러 계층 간의 갈등을 없애는 탁월한 방안이라는 것’<sup>2)</sup>과 더불어 또한 ‘해원상생이 바로 대순진리의 실천원리에 있어서 대강령이며, 이상사회 건설의 실천원리이라는 것’을 고증하면서, 해원상생이 대순진리 실천의 중요한 몫을 하며 대순진리가 지향하는 이상사회 건설에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힐 수 있다. 즉, 해원상생의 현실적 원리와 그 원리를 실현시킬 수 있는 실천수행을 연구하여, 대순진리가 배태할 당시 조선사회의 반상구분, 적서차별, 남녀차별을 척결하려 했듯이 현재의 계층갈등, 갑질문화, 노사대립 등의 사회문제를 풀어갈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다.

## II. 해원상생의 현세 실현

상제님이 순창 회문산에 있는 오선위기(五仙圍基) 혈을 받으시며, 세계 역사를 다섯 신선이 바둑 두는 형국으로 잡아 돌리시는 등 단주 해원 도수로 천지공사를 집행하셨는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해원상생의 후천선경이 온전히 도래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상제님의 뜻이 온누리에 잘 펼쳐져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까닭이다. 상제님의 뜻에 대한 우리 인간의 부응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 인간의 부응이 온전할 때, 상제님의 뜻이 실현되고 집행하신 천지공사가 완성되어 해원상생의 후천선경이 현재 세상에 도래한다. 해원상생의 현세 실현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먼저 대순진리의 해원상생 의미를 논의해 본다.

2) 사회문제도 대순진리가 말하는 원을 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므로, 그 원을 푸는 것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이경원, 「한국민족종교의 특성과 대순사상」, 『신종교연구』 9 (2004), p.230.

## 1. 대순진리의 해원상생 의미

한국 전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해원의 개념은 개인감정의 원한, 원망을 풀다는 의미이다. 개인 원한의 뜻을 지닌 “원(冤)은 그 원인을 해결하여 현실적으로 그 원을 풀 수 있지만 풀지 않은 정황에서 생긴 감정이고.”<sup>3)</sup> 인간들이 살아오면서 인간들 사이에 생기는 오해, 반목과 갈등으로 인하여 생긴다. 이런 원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본능에 기인하여 생긴다. 이 본능이 순치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 되면, 인간은 자신의 욕망을 앞세워 순리에 따르지 않고… 사적인 욕망에 탐닉한다.”<sup>4)</sup> 따라서 우리 인간들이 모여 살면서 다투고 경쟁하면서 생겨난 원한을 풀고 해소하는 것이 해원의 전통적 의미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상생의 전통적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 음양오행설을 끌어들이자면, 수생목(水生木)이요, 화생토(火生土)요 하면서 오행이 상생 방향으로 작용하면 만물이 생성하고, 토극수(土克水)요, 화극금(火克金)이요 하면서 오행이 상극 방향으로 작용하면 만물이 소멸한다고 한다. 그래서 상생상극으로 만물의 생성·소멸을 설명하고, 상생을 오행이 상승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요 상극을 그것이 하강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라고 생각하면서 상생을 만물이 생성하도록 하는 힘이라 생각했다.

또 어원적으로 풀이하자면, “상(相)은 木 + 目으로 이뤄져 있어서 눈으로 나무를 관찰하는 형상이다. 나무는 예전부터 인간이 가장 먼저 보고 대상화하는 존재로 여겨왔다. 또 눈이 나무를 관찰한다는 것은 눈이 모든 사물을 관찰한다는 뜻이 되고, 또 눈이 이 사물, 저 사물을 연결해주고 관계 맺게 해준다는 뜻이 된다. 따라서 상은 눈의 매개로 모든 사물들이 서로 대대(待對)하며, 서로 더불어 존재한다는 의미를

3) 松浦友久, 『詩語としての怨と恨』, 『詩語の諸相』(東京: 研文出版社, 1981); 신은경, 『풍류』 보고서 (1999), p.239 재인용.

4) 유승중, 「해원상생에 내포된 사상적 특성」, 『대순사상논총』 4 (1998), p.303.

가지고 있고,”<sup>5)</sup> 『주역』에서도 “상을 상반된 자연물이나 상반된 성질이 서로 더불어 하거나 서로 더불어 돕는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sup>6)</sup> 그리고 생(生)자는 알다시피 새싹이 땅 위로 돌아나서 자라는 형상을 가지고 있고, 생성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이처럼 어원적으로 분석해 본 상생의 의미는 사물들이나 성질들이 ‘서로 대립하면서도 도우면서 자란다’는 뜻이다.

그런데 대순진리에 나오는 해원의 원(冤)은 ‘宥’+‘免’의 합성자로서 토끼와 같은 생물이 울(嗚)에 갇혀 구속되어 있는 상태를 뜻하므로, 대순진리의 해원은 모든 생물들이 선천적 운명으로 울에 갇혀 구속되어 있는 것을 해방한다는 구원의 의미가 있다. 그리고 그 원은 개인의 원(怨) 이를테면 무속신앙에서 일컫고 있는 원이 아니라 인간숙명의 원이다. 따라서 무속신앙의 해원은 개인의 마음에 맺힌 응어리를 풀어 주는 것이지만, 대순진리의 해원은 모든 인간을 답답한 삶의 굴레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것이며, “인류의 역사를 원의 역사라”<sup>7)</sup> 할 정도로 인류사회에 내려쳐져 있는 진멸지경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것이다.

이런 일을 대순진리는 다음과 같이 언표하고 있다. “상제님께서 가라사대 ‘지기가 통일되지 못하므로 인하여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인류는 자신들의 삶 터전에 맞게 사상이 형성되어 제각기 주장하므로 서로 생각이 엇갈려 반목쟁투 하느니라. 이를 없애려면 … 해원으로써 만고의 신명을 조화하고 천지의 도수를<sup>8)</sup> 조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이룩되면 천지는 개벽되고 선경이 세워지리라’ 하셨도다.”<sup>9)</sup> 따라서 지금의 세계는 지기가 통일되지 못한 연유로 인간 서로들 간에 반목쟁투로 원들이 쌓여 있고 그 원들이 곧 운명적 원(冤)이 되었다. 선천이

5) 李樂毅, 『漢字正解』 2 (서울: 비봉출판사, 1994), p.422 참조.

6) 『周易』 大過卦. 상왈(象曰)과 함괘(咸卦) 상왈(象曰) 등에서 상여(相與), 보상(輔相)이란 문구가 많이 나오고 있다.

7) 고남식, 『전경에 나타난 원의 양상과 해원』, 『대순사상논총』 4 (1998), p.447.

8) ‘인류 역사의 새 이정표라고’ 이해하기 쉽게 달리 표현할 수 있다.

9)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0), 공사 3장 5절.

잘못되어 있는 까닭에 원이 생겼는데, 이 원을 푸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만고의 신명을 조화하고 천지의 도수를 조정하는’ 상제님의 힘으로 가능하다.

그리고 대순진리의 상생은 이를테면 “...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에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어 갖가지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내가...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sup>10)</sup> 즉, 선천에서는 인류가 상극에 지배되어 있고 그러므로 세상이 원한에 쌓이고 맺혀... 참혹하게 되었으니 상제님이 세상의 도수를 정리하여 모든 원한을 풀고 상생의 도로 세계를 건지려 한다고 한다. 여기서 상극은 나쁜 힘 내지 악의 길이라 해석할 수 있으므로, 그 반대개념인 상생은 좋은 힘 내지 선의 길이라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만고의 원한을 풀고 그 다음 과정으로 상생의 도로 세계를 건지려 하노라 함을 볼 때, 상생은 해원을 하고 그 다음 과정으로서 건설적 방향으로 무엇을 해보고자는 의도가 있다. 그리고 대순의 상생은 단순히 윈윈하는 등으로 서로 좋게 하자, 더불어 잘 살자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 실천으로 이상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순진리의 상생은 선천의 모든 문제를 일으켰던 상극과 반대개념이고, 후천 선경세계의 건설을 위해서 꼭 있어야 할 힘이라 할 수 있고, 이를테면 “상극적인 선천세계의 종말 위기에서 인류와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 상제님이 천지공사로 개벽하는 힘이라”<sup>11)</sup> 할 수 있다.

## 2. 현존 세계의 적원상극

일상적 의미로 적원은 원한을 쌓는 것이고 상극은 서로 대립, 반목하는 것이지만, 대순진리의 적원상극(積冤相克)은 현재 세계에서 인간

10) 같은 책, 공사 1장 3절.

11) 이경원, 앞의 글, p.235.

과 중생들이 운명·필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이것 때문에 세상이 혼란하고 시끄럽고 지옥처럼 되게 하는 기운이다. 이 적원상극은 인간과 중생들이 그들의 죄과에 대한 구원을 받지 못하고 내버려둔 까닭에 드리워진 장막이다. 이 장막을 상제님께서 걷어치워질 때 인간과 중생들은 아비규환의 이 세상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게 된다. 적원상극의 세계로부터 탈출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상제님의 힘으로 가능하다. 즉, 『전경』에서 말씀하신 바같이 ‘선천에서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에 원한이 쌓이고 맺혀 있고, 천지가 상도를 잃어 갖가지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이 참혹하게 되어있는’ 이 적원상극은 인간이 선천에서 해왔던 습성이고 우리가 쉽게 떨쳐버리기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거짓말하여 속이고, 남을 해치고, 서로 차별한다.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사는 후천세계에 일어나고 있다. 이런 일들은 인간들 간에 원을 쌓게 하고 서로서로 대립하고 반목하게 한다. 이를테면 거짓말하여 남 속이는 일은 사기행위에서 많이 볼 수 있고, 남을 해치는 일은 온갖 폭행행위, 절도행위 등에서 볼 수 있고, 차별하는 행위는 빈부차별, 계층차별, 인종차별 등에서 볼 수 있다. 그래서 후천세계에서는 여전히 사기행위가 난립하고 온갖 폭행·절도 행위가 난무하고, 그리고 차별하고 천시하는 일들이 유행한다.

적원상극의 실상을 언급하자면, ‘인류는 자신들의 삶 터전에 맞게 사상이 형성되어 제각기 주장함으로 서로 생각이 엇갈려 반목쟁투 하느니라’고 한 것처럼, 인류는 자신들의 풍토에 따라 삶의 방식이 조금씩 다르고 그럼으로써 달라진 사상과 관습을 고집하면서 서로 옹고그르다면서 싸우고 투쟁하는 상극을 행하는 가운데 원이 쌓인다. 그래서 후천세계는 “억음존양(抑陰尊陽)의 탓으로 부정·불응·불평등이 생겨 천지는 혼란복멸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sup>12)</sup>

인간들은 욕심이 지나쳐 정당한 방식으로 경쟁하지 않고 권모술수

12) 『전경』, 공사 3장 5절.

라든가 중상모략을 일삼는 가운데 원을 쌓고,<sup>13)</sup> 남을 배려하지 않고 업신여기는 가운데 원을 쌓아 결국 인간들끼리 불화와 싸움이 끝이질 않는다. 그래서 현존 세상은 아비규환의 상태가 되고, 불행의 역사가 지속되어, “수만 년 동안 상극이 인간과 사물을 지배하여 모든 인사(人事)가 도의(道義)에 어긋나서 원한이 맺히고 쌓여 삼계에 넘쳐서 마침내 살기가 터져 나와 세상에 모든 참혹한 재앙을 일으켜 드디어 세상을 폭파할 지경에 이르고,”<sup>14)</sup> 무상도(無常道), 재겁, 전쟁, 병겁이 있을 뿐인 적원상극의 상태가 되어있다.

### 3. 해원상생의 세계 건설

선천에서 해왔던 적원상극의 습성을 떨쳐버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저 이론적으로 인지한 앎에 의지해서 그 습성을 떨쳐 버릴 수 있는가? 아니면 수칙이나 준칙 등의 매뉴얼을 만들어 그것을 준수하는 가운데 그 습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아니면 예술 감상이나 인격교류의 인성교양을 하여 그 습성을 버릴 수 있겠는가? 필자는 이런 방식으로 그런 습성을 떨쳐버리기는 어렵고, 오직 상제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성실(誠實)히 신앙할 때 비로소 그런 습성을 떨쳐 버릴 수 있음을 밝혀본다.

원(冤)은 선천 세계의 지기가 통일되지 못하여 생길뿐만 아니라 인간과 중생들이 본능적 욕구의 발동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생기고 또한 충족시키는 활동 가운데 생기는 감정이다. 이 원에는 상대방 때문에 발생하는 원망의 감정으로서 원(怨)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이루지 못해서 생기는 원(願)도 있다. 특히 후자의 원이 대순진리의 원(冤)을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한다. 인간들은 생, 노, 병, 사의 한계상황과 식

13) 이것이 적원상극을 형성케 하는 두 번째의 원인이라고 하다. 주찬연, 「두 가지 해원사상 비교」, 『대순사상논총』 24-2 (2015), p.24.

14) 대순진리회 교무부, 『포덕교화기본원리』 2 (여주: 대순진리회 교무부, 2003), pp.6-7.

욕, 성욕, 수면욕, 권력욕 등의 발동을 피할 수 없는 가운데 원의 굴레에 감싸인다. 그 원의 굴레로부터 해방하고 풀려나야만 인간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가 있고, 또한 상생의 삶을 살 수 있다. 즉, 해원이 없는 상생은 있을 수 없다.

그러면 해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상제님의 권능으로 세상의 도수를 바로 잡고 천지공사 하여 현재 세상의 원을 풀 수 있지만, 상제님께서 이 일을 완성하시도록 우리 인간들의 부응도 필요하다. 우리가 상제님의 뜻을 잘 받들고 말씀을 잘 따르고 또한 그런 신앙 삶을 살아야 한다. 이를테면 우리 인간은 ‘척을 짓지 말아야 한다’, ‘자기를 속이지 않아야 한다’, ‘남이 잘되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남을 미워하거나 남의 호의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언덕을 베 풀지 않거나 남을 억울하게 하거나 남을 서운하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맺은 척이 있다면 모두 풀고, 척을 풀기에 앞서 척을 짓지 않아야 한다. 척이 맺혀 있으면 사람들의 반감을 사게 되고, 자신의 번창하려는 운(運)도 막힌다. 또 해원하기 위해서 원수의 원도 풀고 그를 은인처럼 사랑해야 하며, 그리고 해원하기 위해서 자신과 상대방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해야 한다. 상호이해 없이는 해원하기 어렵다. 더 나아가 도전님은 해원하기 위해서 “평화를 서로 깊이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며 그리고 인보상조(隣保相助)의 미덕으로 밋고 고움 없이 서로를 너그럽게 받아들이라 했다.”<sup>15)</sup>

상생은 ‘사람들이 서로 마음을 화합하고 협조하여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 단편적으로 정의해 볼 수 있고, 또한 ‘사람뿐만 아니라 만물이 모두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 폭넓게 정의해 볼 수 있다. 반대로 상생의 이해에 필요한 상극 개념은 사람들의 마음이 서로 잘 어울리지 않아 늘 충돌함을 일삼거나, 여러 사물들 혹은 현상들이 서로 대립되어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해롭게 하여 함께 있을 수 없음을 뜻한다. “상생은 반목과 쟁투, 억압과 차별이 없고, 인간의 내·외적 모순과

15)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지침』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0), p.20.

불평등의 힘에서 벗어나 서로 잘 살아가게 됨을 뜻한다.”<sup>16)</sup> 즉 19세기 중·후반기 한국 민족종교들이 배태할 당시 그 사회에서 있었던 반상 간의 반목과 갈등을 해소시키고, 적서 간의 갈등과 반목을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기운을 의미한다.

이런 “해원과 상생을 상제님은 그의 초월적 권능으로 행한다. 이렇게 해서 건설되는”<sup>17)</sup> 후천 세계는 평등과 화목으로 가득 찬 세상이다. 이 세계는 상극이 없어지고, 원망과 대립, 갈등이 없어진다. 상제님의 힘으로 해원이 이뤄져서 근본적으로 원의 뿌리가 제거됨에 따라 악이 존재할 수 없게 되고, 그리고 상생의 힘이 온 세상에 뻗어나가 모든 인간이 화애롭게 살고 서로들 사랑하고 세상이 발전하게 된다. 즉, 후천 세계에서는 “남녀의 분별을 티워 제각기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풀어 놓았고”,<sup>18)</sup> “비천한 사람에게도 존댓말을 쓰며 적서의 차별이나 반상의 구별이 없어진다.”<sup>19)</sup> 따라서 우리 인간도 상제님의 천지공사 뜻을 받들어 남녀차별, 지역차별, 학벌차별, 사회지위차별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갑질행위, 위력노름, 계급노름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런 일들도 상제님을 진정성(誠) 있게 따르며, 상제님을 두려워(敬)하며, 그리고 상제님의 말씀을 믿으(信)면서 행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현존 세계는 상제님의 뜻에 따라 후천선경으로 온전히 건설되어지고, 원한과 배척이 사라지고 화평과 화해가 도래하는 세상이 된다. 그래서 현존 세계는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되고, 나라 사이의 대립도 사라지고, 인종차별도 없어지고, 종교도 모두 한마음 같이 중생 구도하는 데 동행한다. 바로 이것이 해원상생의 현세실현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 갑질문화 횡행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한 측면을 보

16) 이경원, 「해원상생의 의미와 천지공사」, 『대순사상논총』 4 (1998), pp.548-550.

17) 이것을 천지공사라 일컫는데, 이 천지공사 중 해원공사는 크게 신명계 해원, 인간계 해원, 지계 해원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그 공사는 신명 해원부터 시작해서 인간 해원으로 나아가면서 행해진다. 양무목, 「통일 기반 사상으로서의 해원상생」, 『대순사상논총』 4 (1998), p.12.

18) 『전경』, 공사 1장 32절.

19) 같은 책, 교법 1장 10절.

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현존 세계가 상제님의 뜻에 따라 후천선경으로 온전히 건설되도록 우리 인간이 부응하여 행하는 실천수행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본다.

### Ⅲ. 해원상생의 아중심적 실천수행

대순진리회의 실천수행 방법으로 ‘훈회(訓誨)와 수칙(守則)’, ‘포덕(布德)과 교화(教化)’를 간과할 수 없다. 현재 대순진리회는 ‘상생세계’에 사는 ‘도덕군자’가 되기 위한 유형적 수행 방법으로 ‘훈회와 수칙’ 및 ‘포덕과 교화’에 주목하였다. 대순진리회의 유형적 수행이 추구하는 바는 결국 해원상생 법리에 부합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곧 우리 인간이 인존으로서의 ‘도덕군자’가 되고자 하는 바이고, 후천선경으로서의 ‘상생세계’를 현실에 구현하는 일이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생활 속의 수행으로서 ‘훈회와 수칙’, 도인 실천의 수행으로서 ‘포덕과 교화’를 바르게 실천할 필요가 있다. “생활 속의 수행이면서 아중심적 실천수행은 예컨대 자기를 속이지 않고, 척을 짓지 않으며, 그리고 남이 잘되게 하는 일 등이 있다.”<sup>20)</sup>

또 다른 아중심적 실천수행은 수도(修道)가 있다. 우리는 수도를 통한 해원상생의 실천수행도 자기 혼자만 하지 말고 남과 더불어 하려고 해야 하며, 그리고 생업을 포기하면서 은둔 지향적으로 하려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고 남과 더불어 생업에 종사하면서 그저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내 마음을 자기중심에 두지 않고, 욕심에 얽매이지 않고, 그리고 무착(無着)의 마음으로 해야 한다.

그럼 이제 여기서 적원상극의 습성을 떨쳐버리고 현실적 해원상생을

---

20) 정대진, 「해원상생의 이해」, 『대순사상논총』 4 (1998), pp.18-23.

할 수 있는 실천수행을 논의해 본다. 상제님이 세상의 도수를 바로 세워 모든 원한을 풀고 그래서 상생의 도로 세계를 건지려 할 때,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야 할까? 위에서 논의했듯이 상극은 나쁜 힘 내지 악의 길이라 해석할 수 있고, 그 반대개념인 상생은 좋은 힘 내지 선의 길이라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상생은 ‘상호 협력·부조’, ‘화해와 화합’, ‘균형 및 조화’, ‘공생과 공존’의 힘이며, 동양의 음양오행설에 따르면 음양이 화합하여 발전적으로 나아가고 나아가는 힘 내지 성향이다. 이런 상생의 토대가 갖춰진 현실에서 우리의 실천수행은 척 소멸과 이타 행위, 무욕과 보은, 그리고 실천수행 수도가 있을 것이다.

## 1. 척 소멸과 이타

“상제님께서… 만고에 쌓인 원한을 풀고 상생의 도를 세워 후천선경을 열어 놓으시므로,”<sup>21)</sup> 우리 인간은 그 상생의 도가 잘 실천되기 위해서 ‘척을 짓지 말아야’ 한다. “척과 원은 밀접한 관계이므로 척을 짓지 않는 일이 결국 원을 맺지 않는 것이다.”<sup>22)</sup> 척을 지으면 곧 원이 쌓이고 원이 쌓이면 당연히 상생이 될 수가 없다. 척을 지으면 상제님께서 해놓은 일이 허사가 된다. 그러면 척을 짓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가? 이를테면 “남을 속이는 것이 척을 짓게 되는 원인이요, 살인이 그 원인이요, 전쟁이 그 원인이요, 남의 허물을 비난하는 것이 그 원인이요, 여러 차별을 하는 것이 그 원인이요, 억울한 원한을 뒤집어 씌우는 것이 그 원인이요, 오는 정을 끊은 것이 그 원인이요, 부자의 살기와 재앙이 그 원인이요, 남을 해치는 일이 그 원인이라 한다.”<sup>23)</sup>

그래서 “해원이 척을 푸는 일이며, 척을 맺는 것도 나요, 척을 푸는 것도 나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먼저 뚫으로써 상대는 스스로 풀리게

21) 『전경』, 예시 9절.

22) 고남식, 「전경에 나타난 원의 양상과 해원」, p.474.

23) 류성민, 「‘천지공사’의 종교윤리적 의미에 대한 연구」, 『대순사상논총』 23 (2014), p.8. <표 1> 참조.

되니”<sup>24)</sup>라 하신 바, 후천 세계에서 해원상생하기 위해 우리는 척을 짓지 말아야 한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가 선천에서 있어왔던 남을 속이는 일, 살인하는 일, 전쟁하는 일, 남의 허물을 비난하는 일, 차별하는 일, 억울한 원한을 뒤집어씌우는 일, 오는 정을 끊는 일, 부자의 살기와 재앙을 일으키는 일, 남 해치는 일 등을 지금 여기서 하지 않아 척을 짓지 말아야 한다.

그 다음 후천에서 해원하고 그래서 상생하기 위해서 “우리의 일은 남을 잘되게 하는 공부이나라. 남이 잘되고 남은 것만 차지하여도 되나니”<sup>25)</sup>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남이 잘되게 해야 한다. 우리가 자신의 일을 잘되게 하면 또다시 이기기 위한 경쟁으로 반목하고 시기하고 남을 해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순진리의 상생은 상호간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공생이나 윈윈이 아니라, 이타성의 실천임”<sup>26)</sup>을 천명할 수 있다. 『전경』의 말씀에 “전명숙이 거사할 때 상놈을 양반으로 만들고 천인(賤人)을 귀하게 만들어 주려는 마음을 두었음으로 죽어서 잘되어 조선 명부가 되었으리라”<sup>27)</sup>했다. 이런 이타적 실행이 상생의 길을 열어놓고 또 상생의 길을 걷도록 한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잘되게 하라’는 훈회의 실천처럼 남을 도와주고, 남을 배려해 주고, 그리고 남을 위해주는 실천이 상생의 길로 나아가는 것임을 알고, 또 이것들이 해원상생의 실천수행임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대순진리회는 예컨대 ‘척을 짓지 말라’, ‘남을 잘되게 하라’, ‘언덕을 잘 가지라’의 훈회를 만들어 이것을 지키는 가운데 인간들이 해원상생의 실천수행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 과연 척을 짓지 않으면 그리고 남을 잘되게 하면 아주심적으로 해원상생을 실천할 수 있는가? 위에서 상제님의 말씀을 빌려서 언급했듯이 상제님의 무량한

24) 『대순지침』, p.27.

25) 『전경』, 교법 1장 2절.

26) 주찬연, 앞의 글, IV.대순진리회의 ‘해원상생’사상 p.23 이하.

27) 『전경』, 교법 1장 2절.

마음과 권능으로 세상의 도수를 바로 세워 세상의 적원을 풀어놓으셨다. 그런데 그 해원을 우리 인간이 자신의 실천을 통해서 만나지 못하고 또다시 선천에서처럼 원을 쌓는다면 상제님의 숭고하신 사업은 허사가 된다. 상제님에 대한 성·경·신의 정신 자세를 돈독히 할 때, 그 사업의 숭고성을 의식하고 상제님의 뜻에 이끌려 해원상생을 완성하려는 마음이 솟구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해원상생을 완성하기 위해서 앞서 논의한 바처럼, 척을 짓게 하는 원인을 더 이상 만들거나 행하지 않고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척을 지었던 것에 대한 깊은 반성이 잘되게 하는 공부를 열심히 할 때, 상제님에 대한 우리의 부응은 온전히 이뤄진다.

## 2. 무욕과 보은

우리가 실천수행을 할 때, 욕심이 곧 원을 쌓고 척을 만들게 됨으로 욕심을 버려야 하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음에 대한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 인간은 생과 수명, 복록에 대해 상제님께 보은의 마음을 가져야 하고, 성장과 양육에 대해 부모에게 보은의 마음을 가져야 하며, 그리고 그 밖의 것에 대해 당해 사회나 동시대 사람에게 보은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무욕으로 영이 맑아질 때 도통하여 상생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

이런 무욕과 보은의 마음을 가지는 실천수행을 할 때, 우리의 세계는 더 온전히 지기가 통일되고 도수가 정해져서 자연스럽게 상제님의 말씀과 더불어 후천 상생의 세계가 열린다. 알다시피 상제님의 말씀에 따르면, 선천 세계가 적원상극의 상태로 머물고 있는 것은 지기가 통일되지 못하고, 또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인간들이 서로 반목·쟁투하기 때문이다. 상제님께서 조선 말기에 조선의 지기가 흐트러지고 그래서 백성들이 반목·쟁투한다고 했지만, 이런 말씀은 상제님께서 자신

의 힘으로 이 세계를 구원하고 또 인간들을 구도하겠다는 구원의 의지 표명이라 하겠다. 오히려 상제님의 의지 표명을 알게 된 인간이라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응대로서 욕심 발동으로 생기는 반목·쟁투를 자제해야 하며, 그리고 상제님의 구원의지 표명에 대해 무욕과 보은의 감정으로 상제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

알다시피 대순진리의 해원은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를 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답답하게 하는 삶의 굴레로부터 해방해주고 구원해주는 것이고, 이런 일은 ‘상제님께서 가라사대 인류의 반목쟁투를 없앴으로’ 가능하고, 그리고 ‘상제님께서 만고의 신명을 조화하고 천지의 도수를 조정하여’ 가능하다. 따라서 “현재 우리 사회에 내려갈려져 있는 대립과 갈등, 인간들 간 반목의 원한을 풀기 위해, 당해 인간들의 힘만으로는 절대 되지 않고 상제님의 힘을 빌려야 한다.”<sup>28)</sup> 즉 우리 인간은 자기 욕심 채우는 일을 버리고, 그리고 상제님에 대한 감사의 성의와 경외 그리고 신념을 돈독히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남을 거들떠보지 않고 자기의 삶에 집중·업매여 산다거나 자기 잘되는 일만 챙기는 이기적 삶을 산다거나 그리고 자기 욕심만 채우기 위해서 온갖 자연환경을 오염시키면서 돈벌이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이며, 그리고 상제님의 가르침 예컨대 “원수의 원을 풀고 그를 은인처럼 사랑하라. 그러면 그도 덕이 되어서 복을 이루게 되니라.”<sup>29)</sup> ‘자기 자신의 욕심에 업매여 살지 말라, 남의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을 하라’, ‘자기의 일로 남을 해치지 말라’, ‘누구에게 능욕을 당하는 일이 있거든 상대방을 원망하기에 앞서 먼저 네 몸을 살피는 것을 잊지 말라’는 말씀을 진정으로 믿고 이행해야 한다.

28) 사회문제도 해원을 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므로, 그 원을 푸는 것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이경원, 「한국민족종교의 특성과 대순사상」, p.230 참조.

29) 『진경』, 교법 1장 56절.

### 3. 실천수행 수도

앞에서 해원상생하기 위하여 ‘남에게 척을 짓지 말고 남 잘되게 하는 공부를 하라’고 했는데, 그럼 그 구체적인 공부는 어떻게 할 수 있으며, ‘지나친 욕심을 가지지 말고 보은의 마음을 가지고 살라’ 했는데, 그런 삶의 공부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알다시피 어떠한 실천수행도 수도 없이는 되지 않으며 수도는 자기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이지 직책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남에게 척을 짓지 말고 남 잘되게 하는 공부와 지나친 욕심을 피하고 보은하는 마음으로 살기 위한 공부도 우리 스스로 행하는 수도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수도는 “해원상생·보은상생의 양대 진리가 저절로 마음에 배고 몸으로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sup>30)</sup>

실로 ‘만고의 원한을 풀고 그 다음 과정으로 상생의 도로 세계를 건지려 하노라’는 단주해원의 도수 말씀은<sup>31)</sup> 먼저 개혁으로 해원을 하고 그 다음 상생으로 세계를 구원하고자 함이다. 상극이 횡행하는 선천 세계의 종말에 있는 인류와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 상제님의 의지로 천지공사를 한다는 것은 알려져 있다. 따라서 상생이 인간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상제님의 의지에 따라 행해질 수 있고, 또한 상제님과 인간, 신명의 공동 작업으로 완성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럼 상제님께서 상생의 도로 우리 사회를 구원하는 일에 대한 반응 내지 응보로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수도를 열심히 하면 신명은 바르게 닦는 사람한테 응해 주신다고 상제님

30) 양즈루, 「대순진리회와 유가의 해원, 보은, 상생관에 대한 비교연구」, 『대순사상논총』 24-2 (2015), 1. 대순진리회의 ‘해원상생’과 ‘보은상생’사상 p.58에서 재인용.

31) 이 말씀에 따르면, 상제님이 인간 역사의 문제 해결하는 비밀의 열쇠를 역사상 최초로 가장 큰 원한을 풀고 죽은 단주(丹朱)에게 부여했다. 단주는 약 4,300년 전 사람으로 부친인 요임금에서 왕위를 계승받지 못하고 한평생 우울하게 살다가 죽었다. 이런 단주의 원한을 풀어 주기 위해 순창 회문산의 오선위기 혈을 발음시켜, 세계 역사를 다스린 신선이 바둑 두는 형국으로 잡아 들리시는 것으로 즉, 단주해원 도수로 천지공사를 집행하셨다.

께서 말씀하셨듯이,<sup>32)</sup> 신명이 우리에게 닿아서 우리는 상생의 천지공사에 참여할 수 있다. 이처럼 상제님의 천지공사에 참여하고, 해원상생이 인간 세상에 이뤄지도록 노력하는 일이 무엇인가? 아마도 상제님의 천지공사의 뜻을 잘 받들고 천지공사가 잘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그 분의 말씀을 굳건히 믿고 잘 따르고 실천하는 일 즉, 상제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대순진리를 잘 실천하는 일이다.

그럼 이런 일을 잘하기 위한 길은 무엇일까? 도전님께서 말씀하시길 상제님의 천지공사에 참여하고, 후천개벽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일은 우리가 열심히 수도하는 길 밖에 없다. “열심히 수도한다는 것은 곧 대순진리의 말씀을 굳건히 믿고 그 말씀을 열심히 실천하는 수행의 정진으로써 해원상생의 대도를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sup>33)</sup> 그래서 먼저 준비로 때가 되어 운수를 받으려면 그릇을 준비해서 갖추어야 하는데, 무엇으로써 그릇이 이뤄지는가 하면 바로 성·경·신으로서 이뤄진다고 하시므로,<sup>34)</sup> 우리는 성·경·신을 잘 갖춰서 있어야 하며, “일체의 자부자찬(自負自讚)의 마음을 버리고 수도해야 한다.”<sup>35)</sup> 그리고 “수도는 마음과 몸을 침잠추밀(沈潛推密)하여 고요하게 내 정신을 가다듬어 상제님을 영통 통일의 목적으로 삼고 공경하고 또 공경하고, 정성 드리고 또 정성 드리고 그렇게 어려워도 잠시라도 잊지 않고 항상 마음속에 상제님을 섬기고 있어야 하며, 정신적으로 편안해야 되는 것이라.”<sup>36)</sup> 했다.

이를 위한 수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도전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먼저 상제님에 대한 성의(誠意)를 다하고, 다음에 경의(敬意)와 경외(敬畏), 공경(恭敬)을 다하고, 마지막으로 상제님에 대한 믿음을 다하는 마음으로 수도를 해야 한다. 대순지침에서는 “성(誠)에 대한

32) 『진경』, 교법 1장 29절.

33) 주찬연, 앞의 글, IV.대순진리회의 ‘해원상생’사상 3.해원의 주체 pp.29-30 참조.

34) 『진경』, 교운 1장 30절, “福祿誠敬信 壽命誠敬信 至氣今至願爲大降”

35) 『대순지침』, p.50.

36) 『대순진리회요람』, p.18.

의미를 인간이 지성으로 마음을 닦아 생활해 … 도통진경에 이른다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듯이”,<sup>37)</sup> 어쨌든 우리가 상제님에 대한 성실하고 진정한 마음을 다해서 행하는 수도가 올바른 수도이고, 상제님을 진정으로 공경하고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수도가 올바른 수도이고, 그리고 상제님에 대한 지극한 신앙이 있는 가운데 행하는 수도가 올바른 수도라는 것은 “성·경·신 삼법언(三法言)으로 수도의 요체”<sup>38)</sup>를 삼도록 하신 도전님의 말씀을 봐서도 그리고 종교심리학적으로도 타당하다. 상제님에 대한 진정하고 성실한 마음이 있고, 상제님에 대한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상제님에 대한 한 치의 의심 없는 마음이 진정으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수도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도는 대순진리를 “심수덕행(心修德行)”<sup>39)</sup>하는 즉 대순진리를 마음으로 깊이 닦고 온전하고 크게 행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그 실천방법은 ‘자기 마음을 속이지 말라’, ‘언덕을 잘 지켜라’, ‘척을 짓지 말라’, ‘은혜를 저버리지 말라’, ‘남을 잘되게 하라’고 『대순지침』에서 말하고 있다.”<sup>40)</sup>

그리고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을 수도의 훈전으로 삼아가라는 도전님의 말씀을 빌리자면,<sup>41)</sup> 수도 할 때 몸과 마음을 어디에 얽매이거나 어디로 쫓겨서는 안 되고 안정되고 편안한 상태를 가져야 한다. “… 수도의 제 규정을 엄수하고 사(邪)된 방법을 취하지 않아야 청정의 경지에 이르러 취정(聚精)이 되느니라.”<sup>42)</sup> 하시듯이, 수도할 때 수도의 방법이 옳지 못하고 수도의 규정을 어기거나, 마음이 물욕이나 정욕,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다거나 몸이 불편하거나 긴장하거나 허탈해 있으면 수도가 온전치 못하다. 오히려 “수도할 때 상제님에 대한

37) 고남식, 「삼요체 성경신에 대한 소고」, 『대순사상논총』 12 (2001), p.260.

38) 『대순진리회요람』, p.9.

39) 『대순지침』, p.45.

40) 이항녕, 「해원상생사상의 현대적 의의」, III. 해원의 방법 p.13.

41) 『대순진리회요람』, p.9.

42) 『대순지침』, p.40.

‘경천’의 정신을 돈독히 소지하고 있는 혹은 상제님을 모시는 영시(永侍)의 정신을 마음속에 간직해 있는 자세로”<sup>43)</sup> “도인으로서 본분에 알맞은 참된 말과 참된 행위를 준행하여야 한다.”<sup>44)</sup>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상제님에 대한 성·경·신이 없고 쓸데없이 허망한 말과 행동에 이끌려 집중되지 않고 방사해 있고 그로 인해 몸이 본능적 충동에 이끌려 있으면 수도가 온전하게 행해질 수 없다. 이상으로 알 수 있듯이 해원상생의 실천수행으로서 수도는 성·경·신의 자세로 대순진리에서 정해놓고 있는 훈회, 수칙을 허망하고 사사로운 마음에 이끌리지 않고 잘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 IV. 해원상생의 타중심적 실천수행

“대순진리회에서는 도인들의 실천수도 면에서 두 가지 측면을 강조하는데, 즉 포덕과 교화…이라”<sup>45)</sup> 한 바처럼, 인간이 천지공사에 동참하고 해원상생을 실현하도록 노력하는 일 즉, 상제님의 천지공사에 기여·이바지하기 위한 인간의 타중심적 실천수행은 바로 포덕과 교화이다. 포덕은 진실한 마음이 상제님의 말씀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진실한 검허와 밝은 지혜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항상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상제님을 공경하고 믿음 가운데 얻은 지혜를 소지해야 한다. 그리고 교화는 “상제님으로부터 성(誠)을 부여받고 상제님을 두려워하며 믿음을 두텁게 함으로써 온전히 이뤄진다 함으로,”<sup>46)</sup> 상제

43) 이광주, 「주자학과 대순사상의 수양론 비교 연구」, 『대순사상논총』 24-2 (2015), III.수양의 방법 2.대순사상의 신앙적 방법: 사강령과 삼요체, pp.249-250.

44) 『대순지침』, p.23.

45) 양연, 「대순진리회의 수도 요체와 심신 수양」, 『대순사상논총』 21 (2013), III.대순진리회의 실천 수도 p.342.

46) 『대순지침』, p.54 참조, “포덕·교화·수도 및 모든 일이 성·경·신을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님에 대한 경외심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행함이 효과적이다. 이를 위한 일상생활 속의 실천은 대순진리의 신조와 훈회, 수칙에 잘 제시되어 있는 이를테면 ‘상제님에 대해 성의, 정성을 다하라’, ‘상제님을 지극히 두려워하고 공경하라’, ‘상제님에 대한 믿음을 소홀히 하지 말라’, ‘마음을 속이지 말라’, ‘언덕을 잘 가지라’ 등이다. 따라서 이상의 실천들을 통한 포덕과 교화가 현세에 해원상생 실현할 수 있는 실천적 작동을 잘하는지 해명해 본다.

## 1. 포덕·교화의 종교적 의의

먼저 포덕이란 상제님의 무량하신 덕화를 세상에 널리 알리는 일이라 할 수 있고, 더 상세히 말하자면 포덕은 상제님께서 천지신명의 하소연에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진멸지경에 빠진 인간과 신명을 구하여 영원한 복록이 있는 후천선경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과 이에 맞추어 수도를 함으로써 큰 운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천하창생들에게 알리는 일이라 할 수 있으므로,<sup>47)</sup> 포덕은 일종의 포교 행위라 할 수 있다. 또한 포덕은 “상제님의 말씀을 여러 사람에게 전해준다. 혹은 덕이 바로 대순진리 내지 상제님의 덕이라 간주하고 그 진리 내지 덕을 여러 사람에게 퍼뜨린다는 의미가 있다.”<sup>48)</sup> 따라서 대순진리회의 포덕은 구천상제(九天上帝)가 인간 세상에 내려오셔서 광구천하(匡救天下)와 광제창생(廣濟蒼生)을 위해 9년 간 천지공사 행하신 진리와 상제님의 뜻을 받드시는 도주님과 도전님의 맥을 인간들에게 널리 알려 도를 통하고 선경의 복을 받게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교화는 상제님께서 개벽하시는 후천선경이 틀림없이 도래하며 운수

47) 같은 책, p.44, “앞으로의 선경 세계에 동참할 길을 알려 주는 일을 우리 도는 포덕이라 한다.”

48) 김정태, 「해원상생의 실천방안에 관한 연구」, 『대순사상논총』 4 (1998), p.493, “대순진리에서 나타나는 포덕은 덕을 편다는 뜻으로 해석되며, … 상제님의 덕을 얻어 그것을 여러 사람에게 퍼는 일이다.”

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고 깨닫게 해주고, “입도한 도인에게 밝은 재활(再活)이 불역(不易)의 천운구인(天運救人)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을 자인 자각”<sup>49)</sup>하게 하고, 대운대통이 꼭 있음을 본인 스스로 알고 이해하여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인 만큼, 교화는 도인을 교육하여 감화하고, 종교상으로 신의 말씀을 받아들여 실천하게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래서 대순진리회는 도인이 교화 잘 할 수 있도록 성·경·신을 다하여 포덕을 하고 또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 교화하라고 독려한다. 그리고 교화가 개인의 도통·완성이라는 목적과 종단의 광구천하·광제창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포덕은 음양합덕, 신인조화, 해원상생, 도통진경의 종교 법리로 상제님이 인간 세상을 구원하여 지상천국 건설하신다는 것을 알리는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므로 훌륭한 포덕이 없는 교화는 내용 없는 신앙을 요구하는 것이고, 훌륭한 교화 없는 포덕은 열매 맺지 못하는 교설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포덕은 항상 교화를 수반해야 하며, 교화는 항상 포덕을 전제해야 한다.

이런 측면으로 볼 때, 포덕과 교화는 상호 동반하는 것으로서 포덕이 이뤄지고 그것에 의해서 교화가 연쇄해서 이뤄져야 하는 실천수행 즉, 상호부조하면서 종교 목적을 달성해 가는 타중심적 실천수행임을 알 수 있다.

## 2. 포덕·교화의 실천 목표

먼저 포덕과 교화의 목적이 무엇이며, 그것들의 실천이 지향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논의해 볼 수 있다. 즉 포덕·교화가 실천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가? “상제님께서 하루는 김형렬에게 ‘삼계의 대권을 주재하여 조화로써 천지를 개벽하고 후천선경을 열어 고해에 빠진

49) 『대순지침』, p.22.

중생을 널리 건지려 하노라’ 말씀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제 말세를 당하여 앞으로 무극대운이 열리나니 모든 일에 조심하여 남에게 척을 짓지 말고 죄를 멀리하여 순결한 마음으로 천지 공정에 참여하라’<sup>50)</sup>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포덕과 교화는 결국 상제님께서 천지개벽하고 후천선경을 여셔서 중생 구원하실 것을 알리는 말씀을 전하고 믿게 하는 일이며, 또한 상제님께서 천지개벽하고 후천선경을 여실 때 우리 인간이 천지공사에 훌륭하게 참여하기 위한 준비이고, 상제님에 대한 반응이자 부응이고, 결국 “인도(人道)를 선도하여 윤리도덕의 상도를 바로 이룩”<sup>51)</sup>하는 일이다.

따라서 포덕과 교화는 결과적으로 해원상생을 실행하고 그것을 현세에 실현해서 이상사회인 후천선경을 건설하는 인간의 일이다. 상제님께서 지기를 바로잡아 해원상생의 힘이 작동하도록 하지만, 역시 인간이 상제님의 뜻을 받들어 그 힘이 우리 현세에 실현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포덕과 교화의 실천적 지향점이고 목표이다. 따라서 인간은 상제님의 깊은 뜻을 헤아려 해원상생하기 위해 그 진리를 이해하고 해원상생의 구체적 실천을 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상제님의 존재와 말씀을 지극한 마음으로 따르고 자기 자신과 진리를 속이지 말아야 하며, 해원상생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마음을 수양하고 우리의 본성을 다듬어야 하고, 기운을 깨끗이 씻고 기질을 순화해서 대순진리를 부지런히 수행해야 한다. 그래서 포덕과 교화를 잘 실천하기 위하여 “무자기(無自欺), 수심연성(修心煉性), 세기연질(洗氣煉質), 면이수지(勉而修之), 성지우성(誠之又誠)”<sup>52)</sup> 등의 실천보덕을 잘 이행해야 한다.

포덕은 인도를 선도하여 윤리도덕의 상도를 바로 이룩하는 일, 즉 “포덕은 덕화의 선양이기 때문에 덕화에 손상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sup>53)</sup>

50) 같은 책, 예시 17절.

51) 『대순지침』, p.19.

52) 『대순진리회요람』, p.9 참조.

53) 『대순지침』, p.22.

하시므로, 포덕은 인간 세상을 도덕화 하는 일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포덕이란 상제님께서 광구천하와 광계창생 하시려고 하신 9년간의 천지공사를 널리 알려 지상낙원의 복을 받게 하는 일”<sup>54)</sup>임을 알려 주는 것이므로, 포덕은 현재 세계를 이상사회로 건설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하고 있다.

그럼 교화의 실천이 지향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교화는 포덕을 온전히 실행하는 수단이다. 교화는 “기본 교리를 상대에게 알기 쉽도록 이해 시켜 진리를 확신케”<sup>55)</sup> 해야 하며, 포덕의 내용이 교화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내면화되고 온전히 전달되어야 한다. 포덕을 통해서 상제님의 말씀이나 덕이 사람들에게 전달된다면, 교화를 통해서 상제님의 말씀이나 덕이 사람들에게 소화되고 납득되고 신앙되어진다. 그래서 교화를 통해서 진정으로 상제님의 말씀과 덕이 사람들에게 온전히 전달되어지고 체득되어진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상제님의 말씀과 덕이 온전히 실현가능해진다 할 수 있다.

“교화의 지향점은 상제님의 말씀이나 대순진리를 사람에게 이해하기 편하게 알리는 것이며, 그것을 통해서 대순진리를 확신케 하여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수도하도록 하는데 있다.”<sup>56)</sup>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순진리를 사람에게 이해하기 쉽게 알리고, 이를 통해 대순진리를 믿도록 하여 올바른 신앙과 수도를 하도록 하는 것이 교화의 목표라 해도, 포덕을 통하지 않고 교화하는 것은 감성적으로 상제님의 말씀이나 덕을 전하는 것이 되고, 믿음부터 앞세우는 바가 되어 대순진리를 전하는 것이 소홀이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교화는 오직 포덕 후에 행해져야 대순진리를 온전하게 사람들에게 체득하도록 하며, 대순진리와 상제님 말씀이 사람들에게 온전하게 전해지고 온전히 신앙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4) 같은 책, p.21.

55) 같은 책, p.44.

56) 김정태, 앞의 글, pp.513-514.

### 3. 포덕·교화의 실천 방법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은 포덕·교화의 실천 목표를 잘 알고 포덕과 교화를 해야 하지만, 현실에서 포덕과 교화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역시 논의거리가 되고 있다. 실로 포덕 하는 일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다. 그 논란을 개개로 분석하고 논쟁하면서 바람직한 해답을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일을 일거에 종합·포괄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은 포덕과 교화를 상생의 원리로 행하라는 도전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다.<sup>57)</sup>

이런 실천 방법에 점진적으로 접근해 논의를 진행해 보면, 포덕은 “진리만을 전하되 흑세무민할 소지를 삼가하라.”<sup>58)</sup>고 했듯이 참되게 해야 한다. 포덕 실천이 참되게 되지 못하고 거짓되게 되는 것을 대순진리에서는 가장 경계한다. 예컨대 도전님께서서는 “모든 도인들은 믿음이 근본이니 믿음을 바르게 하도록 항상 배우고 『전경』의 말씀을 많이 읽도록 하라.”<sup>59)</sup>고 하셨다. 서양 중세 훌륭한 호교가로 알려진 테이틀리아누스가 ‘하느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믿어라. 그러면 너는 하느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느니라’고 했듯이, 믿음이 대순진리를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관건이므로 믿음을 깊고 공고히 해야 하고, 그리고 대순진리의 말씀인 『전경』을 많이 읽고 익혀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비로소 포덕을 참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다.

또 포덕을 실천할 때, 언행과 행동을 바르게 하고 지탄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 “부당한 언사나 처사로 행동하여 덕화 손상을 시키지 말아야 한다.”<sup>60)</sup>, “남의 비방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포덕의 한 방편이 되는 것이다.”<sup>61)</sup>는 도전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포덕의 실천에

57) 『대순지침』, p.20, “상생의 원리로 포덕·교화하라.”

58) 같은 책, p.76.

59) 같은 책, p.77.

60) 같은 책, p.22.

61) 같은 책, pp.22-23.

언행 조심하고 남의 비방거리를 남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 역시 ‘남을 잘되게 하라’는 상생의 원리에 입각한 포덕 실천방법이겠지만, 또한 우리가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상제님의 말씀이나 덕을 전할지라도 전하는 자가 부도덕한 행동을 하여 비방거리가 될 때, 그 말씀이나 덕을 온전히 전할 수 없고 전해 받으려는 자들도 수단이 나쁘고 시원찮기 때문에 그 내용을 온전히 받아들이거나 이해하려 하지 않음은 당연하다.

또 “말재주보다 행동과 처신으로써 상대를 감화시키는 자세를 가져라.”<sup>62)</sup>, “이웃 주민들과의 상호 유대를 맺어 처신처사를 올바르게 하여 신뢰를 받게 되면 이것 역시 포덕이다.”<sup>63)</sup>는 도전님의 말씀에서 걸치레 말보다는 올바른 행동과 솔선수범으로 남을 감화하는 포덕방법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포덕방법이 선택되어진다. 그래서 올바른 행동과 솔선수범의 자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포덕 실천이 역시 남을 배려하고 남과 더불어 후천선경에 들어가려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므로, 역시 상생의 원리에 따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대순진리에서 교화를 “입도한 도인에게 밝은 재활(再活)이 불역(不易)의 천운구인(天運救人)의 시대를 맞이하게 됨을 자인 자각케 하는 것이다.”<sup>64)</sup> 하면서, 교화 실천은 이제 하늘의 운이 인간을 구원하는 시대가 되어 선경시대가 도래했음을 인간들이 스스로 인정하고 스스로 각성하도록 하는 일이라 했다. 그럼 이런 교화 실천을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도전님의 말씀을 참조해 보자. 도전님은 “임기응변하지 말고 진실을 알려 전폭적으로 믿도록 하여야 한다.”<sup>65)</sup> “수반도인에 대한 교화를 인정이 넘치고, 신뢰가 감돌아 허세를 부리지 말고, 안색은 화기롭게 편안한 장소에서 안정한 시간을 택하여 부담이 없는 대화로써 신앙심을 높여 진리 도통의 진경에 이르도록 계도하는 것이다.”<sup>66)</sup> 하

62) 같은 책, p.77.

63) 같은 책, p.31.

64) 같은 책, p.22.

65) 같은 책, p.45.

신다. 이 말씀은 가벼운 언변으로 남을 교화하려 하지 말고 진실을 바탕으로 한 깊은 마음으로 교화하라는 것이다. 실로 마음이 통하지 않고는 즉 이심전심하지 않고는 참된 교화가 이뤄지지 않고, 또 사람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불편하고 삭막한 분위기 속에서 참된 교화가 이뤄지지 않는다.

그래서 참된 교화를 구체적으로 행하기 위한 방안을 펼치는 대순진리의 신조 삼요체인 성·경·신에서 찾아본다.<sup>67)</sup> 그 신조의 성은 알다시피 상제님에 대한 우리 인간의 성실, 정성, 진정성이다. 조선 왕조 때 충성을 백성들에게 요구했고, 백성들이 충성을 다할 때, 조선은 잘 발전하고 융성했다. 마찬가지로 인간들이 상제님에 성을 다할 때, 대순진리는 인간들의 마음속으로 깊고 널리 전해지며 명심될 것이다. 또한 경도 이러한 일에 도움 준다. 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인간은 상제님에 대한 신성한 전율의 신앙심이 발동하고 그런 신앙의 감정이 인간으로 하여금 대순진리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도록 한다. 왜냐하면 “경은 상제님에 대한 신앙심과 일련의 연관성을 갖고 있으며, 외경심으로 발동하여 신앙심 형성과 수행에 일련의 규범적 모델로 작용하기”<sup>68)</sup> 때문이다. 신(信) 또한 대순진리의 실천을 위한 의지와 힘을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마음과 경건하고 믿음 있는 자세를 가진 사람은 교화 잘 할 수 있다. 그리고 “대순진리는 『전경』을 근본으로 하여 참다운 도인이 되도록 교화하여야 한다.”<sup>69)</sup>고 하며, 도를 완성하고 덕을 이루는 것은 상제님에 대한 정성과 경건 그리고 믿음에 있으니 이 깊고 참된 뜻을 순서 있게 전하여 신앙심을 깊게 심도록 하라고 했다. 위의 논의와 말씀을 통해 볼 때, 『전경』의 대순진리를 통해

66) 같은 책, p.45.

67) 그 이유는 ‘수도뿐만 아니라 포덕, 교화가 대순진리의 지침이나 요람에 나오는 신앙 원칙 혹은 외형적 의례만으로는 결코 온전히 이뤄지지 않고 내면적 마음 자세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백경연, 「대순진리회 교화의 역사적 전형에 관한 연구」, 『대순사상논총』 22 (2014), III. 대순진리회 교화의 역사적 전형 3. 박우당 도전의 교화 역사 p.495.

68) 고남식, 「삼요체 성경신에 대한 소고」, V. 결론, p.290.

69) 『대순지침』, p.17.

서 교화를 참되게 하는 것과, 신조의 삼요체인 성의, 경외와 공경, 신앙을 통한 대순진리의 깊은 감복으로써 교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 V. 맺음말

상제님의 의지와 힘으로 선천의 적원을 풀고 상생의 도로 후천선경 건설할 토대를 마련하신지 오래되었다. 그러나 상제님의 뜻에 부응하여 우리 인간이 그 건설에 참여하지 않으면 후천선경이 온전히 도래하지 않는다. 우리 인간이 그 건설에 참여하는 것은 이를테면 상제님을 성의가 가득 찬 마음으로 모시고, 경외와 존경으로 우러러 보며, 상제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르고 실천하는 일이다. 이것은 곧 상제님이 이 세계를 후천선경으로 건설하고자 하신 뜻과 건설하기 위해서 도수를 바로잡아 천지공사를 하신 일에 대한 우리 인간의 부응이다. 이런 부응이 없으면 상제님의 뜻과 천지공사가 온전히 실현될 수 없다.

이런 부응으로서 우리 인간의 할 일을 본론에서 고찰해 본 결과, 우리 인간은 우선 선천에서 해왔던 적원상극의 습성을 떨쳐버리고, 그 다음 그저 이론적으로 인지한 앎에 의지해서 살지 말고 상제님에 대해 성의가 가득하고 존경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실천수행은 해원상생의 이중심적 실천수행과 타중심적 실천수행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행할 수 있다.

상제님의 천지공사에 참여해서 후천선경의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해원상생의 이중심적 실천수행은 척 소멸과 이타 행위, 무욕과 보은, 그리고 실천수행 수도가 있다. 이런 수행을 대순지침의 훈회와 수칙 등에서 독려하고 있지만, 상제님의 말씀에서도 계시하고 있다. 이를테면 선천에서 있어왔던 남을 속이는 일, 살인하는 일, 전쟁하는 일, 남

의 허물을 비난하는 일, 여러 차별하는 일, 억울한 원한을 뒤집어씌우는 일, 남 해치는 일 등 척의 원인이 되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남이 잘되게 하는 일을 하여 현세에서 상생의 기운이 퍼져나가게 하라. 지나친 욕심은 서로 경쟁과 반목을 초래하기 때문에 삼가하고, 남의 은혜를 잊지 말라. 그리고 이런 수행을 몸에 배이게 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침잠추밀하여 상제님에 대한 성·경·신의 자세로 수도하라고 하신다.

본론에서 밝혔듯이 포덕은 상제님의 무량하신 덕화를 세상에 널리 알려주는 것이고, 교화는 상제님의 천지공사로 후천선경이 곧 틀림없이 도래하며 그 공사에 동참해야 함을 믿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포덕과 교화를 통해서 상제님의 천지공사에 참여하게 된다. 이런 일을 할 때, 우리는 부당한 언행이나 처사로 덕화를 손상시키지 말고, 남의 비방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며, 그리고 참되고 신뢰 있게 해야 한다. 이는 대순진리를 참되게 알리고 천지공사에 올바르게 참여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포덕과 교화는 상제님의 말씀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 그것을 도인들에게 각인시키고 납득시켜서 그 말씀을 신앙하고 그 말씀을 준수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현세의 천지공사에 참여하는 실천수행이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상제님이 세계 도수를 바로 잡아 행하시는 천지공사에 우리 인간이 참여함으로써 현세의 후천선경을 온전히 건설할 수 있다. 이 참여는 상제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해원상생의 도로서 해야 하며, 이 상생의 도도 특히 이타적 실천으로 행해야 한다. 필자는 이 해원상생의 도를 이중심적 실천수행과 타중심적 실천수행으로 나눠서 밝혀 보고, 그 각 수행을 다시 척 소멸과 이타 행위, 무욕과 보은의 행, 실천수행 수도 그리고 포덕과 교화로 분류해 보았다. 그래서 현세에 해원상생의 실현은 그 무엇보다도 이타행이 먼저이고, 이타행이 오늘날 갑질문화의 청산을 위한 하나의 해결책임을 대순진리를 빌려서 역설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0.
-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지침』,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0.
-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진리회요람』,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0.
- 『동경대전』, 서울: 을유문화사, 1975.
- 『예기』, 서울: 성균서관, 1979.
- 고남식, 「전경에 나타난 원의 양상과 해원」, 『대순사상논총』 4, 1998.
- \_\_\_\_\_, 「삼요체 성경신에 대한 소고」, 『대순사상논총』 12, 2001.
- 금장태, 『유학사상의 이해』, 서울: 집문당, 1996.
- 김광재, 「동학농민운동의 역사적 의의」, 『동학연구』 11, 2002.
- 김명섭, 「상생의 국제질서와 세계정부」, 『국제이해교육』 7, 2002.
- 김정태, 「해원상생의 실천방안에 관한 연구」, 『대순사상논총』 4, 1998.
- 김열규, 「원한의식과 원령신앙」, 『증산사상연구』 5, 1979.
- 노길명, 「한국의 신흥종교운동의 사상적 특성」, 『종교신학연구』 2, 1989.
- 림영창, 「해원상생의 다원적 고찰」, 『대순사상논총』 4, 1998.
- 류성민, 「‘천지공사’의 종교윤리적 의미에 대한 연구」, 『대순사상논총』 23, 2014.
- 박용철, 「해원상생의 실현에 대한 고찰」, 『대순사상논총』 4, 1998.
- 백경연, 「대순진리회 교화의 역사적 전형에 관한 연구」, 『대순사상논총』 22, 2014.
- 정대진, 「해원상생의 이해」, 『대순사상논총』 4, 1998.
- \_\_\_\_\_, 『대순사상논총』, 경기: 도서출판 일심, 2003.
- 정혜정, 「동학·천도교의 교육사상과 실천」, 『한국문명학회총서』 2, 서울: 도서출판 혜안, 2001.
- \_\_\_\_\_, 「동학의 성경신 이해와 분석」, 『동학학보』 3, 2002.
- 주관연, 「두 가지 해원사상 비교」, 『대순사상논총』 24-2, 2015.
- 쓰보이 슌에이, 『정토교개론』, 서울: 도서출판 홍법원, 1996.

- 안종윤, 「윤리학 측면에서 본 해원상생론」, 『대순사상논총』 4, 1998.
- 양즈루, 「대순진리회와 유가의 해원, 보은, 상생관에 대한 비교연구」, 『대순사상논총』 24-2, 2015.
- 양 연, 「대순진리회의 수도 요체와 심신 수양」, 『대순사상논총』 21, 2013.
- 이기동, 「이퇴계의 인도주의와 경」, 『퇴계학보』 54, 1987.
- 이광주, 「주자학과 대순사상의 수양론 비교 연구」, 『대순사상논총』 24-2, 2015.
- 이경원, 「해원상생의 의미와 천지공사」, 『대순사상논총』 4, 1998.
- \_\_\_\_\_, 「성·경·신과 대순수양론 연구」, 『대순사상논총』 12, 2001.
- \_\_\_\_\_, 「한국민족종교의 특성과 대순사상」, 『신종교연구』 9, 2004.
- \_\_\_\_\_, 「대순진리회의 상생이념에 관한 연구」, 『신종교연구』 13, 2005.
- 이탁의, 『한자정해』 2, 서울: 비봉출판사, 1994.
- 이삼열, 「상생의 세계와 세계시민의 윤리」, 『국제이해교육』 7, 2002.
- 이승민, 「대순진리회의 신조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이항녕, 「해원상생사상의 현대적 의의」, 『대순사상논총』 4, 1998.
- \_\_\_\_\_, 「성의 현대적 의의」, 『대순사상논총』 9, 2000.
- 유승중, 「해원상생에 내포된 사상적 특성」, 『대순사상논총』 4, 1998.
- \_\_\_\_\_, 「성·경·신에 나타난 수도론」, 『대순사상논총』 12, 2001.
- 윤기봉, 「삼요체의 실천수도론적 의미」, 『대순사상논총』 10, 2000.
- \_\_\_\_\_, 「삼요체 안에서의 신에 신앙적 의미」, 『대순사상논총』 11, 2001.
- 윤석산, 『용담유사』, 서울: 동학사, 1999.
- 윤재근, 「해원상생의 실천방법에 대한 소고」, 『대순사상논총』 4, 1998.
- 최동희 외, 『한국의 민속·종교사상』, 서울: 삼성출판사, 1997.
- 최동희·이경원, 『대순진리의 신앙과 목적』, 포천: 대순사상학술원, 2000.
- 松浦友久, 「詩語としての怨と恨」, 『詩語の諸相』, 東京: 研文出版社, 1981.

▪Abstract▪

## A Study on the Realization of Daesoonjinri's Haewon Sangsaeng in this World and Its Practical Action

**Kum Kyo-young**

Yeungnam University

In this paper, this author studied the realization of Daesoonjinri's Haewon Sangsaeng (解冤相生) in this world, for instance discussed the meaning of Daesoonjinri's Haewon Sangsaeng, a world construction with Haewon Sangsaeng, its practical action for the realization of Haewon Sangsaeng, and so forth. A description of the contents is as follows.

Daesoonjinri's Haewon Sangsaeng eliminates the resentment of human destiny, and provides the grounds that we peoples can live with, going to help each other. And then the realization of Daesoonjinri's Haewon Sangsaeng in this world will require us to this society. Really Sangje(上帝) wanted to perform it in this world, and has performed it with a reorganizing in the order of heaven and the earth(天地公事).

In response to the deeper sublimest will of Sangje, we humans can not help but do as follows: When Sangje has done a reorganizing in the order of heaven and the earth, we humans should participate in it. This is our response to the will of Sangje who wants to build an ideal society in this world. And in oder to participate in a reorganizing in

the order of heaven and the earth, we humans should look up Sangje with Sincerity(誠), Reverence(敬), and should practice the words of Sangje with Faith(信). This kind of thing is a route that we should avoid Jeokwon Sanggeuk(積怨相克) and should perform Haewon Sangsaeng.

This Haewon Sangsaeng can be achieved with no Chuck(無慙), an altruistic, no greed(無慾), an execution of asceticism(修道), and the practice of Podeok(布德)·Rehabilitation(教化). No making of a Chuck, doing an altruistic, no greed, an execution of asceticism would not deceive others, would not murder others, would not blame the transgressions of others, would not discriminate, would not harm others. And Podeok·Rehabilitation should be performed well in practice. When performing Podeok and Rehabilitation, we should not nullify them as unjust words or undue actions, and we must be a true. Because we must make the words of Sangje inform a world wide well, and must convince the words of Sangje to peoples so that they can adhere to them with a faith. That's the way that we humans should participate in a reorganizing in the order of heaven and the earth in this current world, and the way that we should contribute to building the ideal society in the world.

**Key words** : Haewon Sangsaeng, Sangje, a reorganizing in the order of heaven and the earth, no Chuck, an altruistic, no greed, an execution of asceticism, Podeok, Rehabilitation

◎ 투 고 일 : 2015년 5월 31일

◎ 심 사 기 간 : 2015년 7월 24일~8월 5일

◎ 계 재 확 정 일 : 2015년 10월 6일